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4 No.5

한·GCC FTA 협상 재개 필요성과 기대효과

2015년 3월

명진호 수석연구원

박지은 수석연구원

서은영 연구조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한-GCC FTA 추진 현황	1
II. 한-GCC FTA 추진 필요성	3
III. 한-GCC FTA 기대효과 및 검토사항	12
IV. 결론 및 시사점	21
<참고자료>	23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명 진 호 수석연구원
박 지 은 수석연구원
서은영 연구조원

(☎ 02-6000-5263, thetotoro@kita.net)
(☎ 02-6000-5342, jieunpark@kita.net)

- 요약 -

과거 중동붐으로 우리 경제 도약에 큰 도움을 주었던 GCC는 여전히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중요한 수출 시장이자 자원 공급처이며 동시에 건설·플랜트의 최대 발주처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먼저 수출을 살펴보면 GCC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14년 기준)에 그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GCC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승용차는 對세계 수출에서 GCC가 차지하는 비중이 11.5%로 EU 시장만큼 중요성이 크고 담배(39.1%)와 에어컨(30.0%)은 GCC가 최대 수출 시장이다. 화학기계(15.2%), 밸브(21.0%), 차단기(39.6%), 철근(21.8%) 등 우리 기업의 건설·플랜트 수주와 관련된 품목도 전체 수출에서 GCC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GCC 역내에 제조기반이 부족하여 수입 의존이 높은 만큼 우리에게 수출 시장으로서 의미가 큰 것이다.

건설·플랜트 시장에서도 GCC의 의미는 독보적이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플랜트의 39.8%(누적기준)가 GCC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원 공급처로서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1.9%, 천연가스 수입의 49.3%를 GCC가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GCC와 FTA 협상을 추진했지만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한-GCC FTA 공식 협상을 3차례 개최했으나 곧이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GCC가 추진중이던 모든 FTA 협상과 함께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GCC의 FTA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GCC와 FTA 협상을 재개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GCC는 수년 간 미루어왔던 싱가포르('08.12월 서명→'13.9월 발효), EFTA('09.6월 서명→'14.7월 발효)와의 FTA를 최근 연달아 발효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GCC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GCC가 싱가포르, EFTA 등 최근 FTA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달성하고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임에도 FTA에서는 정부조달 시장을 여는 등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상품 시장 개방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GCC의 수출의 관세장벽이 연간 11.1억 달러 수준인데 FTA를 통해 상당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관세 절감액은 한-미 FTA(연간 9.3억 달러)에 버금갈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GCC 국가들이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FTA에 정부조달 시장이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여건도 비약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GCC와 FTA 협상이 모두 중단된 상태인 만큼 한 발 빠른 FTA 체결로 선점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다.

본 문

I. 한·GCC FTA 추진 현황

1. GCC의 FTA 추진 현황

□ GCC는 총 17개국과의 4건 FTA를 발효중

- GCC는 GAFTA, 레바논, 싱가포르, EFTA와 4건의 FTA 발효
- GCC는 금융위기, 제조업 육성 필요, 역내 관습과 제도 보호의 필요성, 6개 회원국 간 견해 차이 등의 이유로 2009년 이후 한국, EU, 중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을 잠정 중단
- 공식서명 이후 장기간 발효가 지연되었던 싱가포르(2013년), EFTA(2014년) 등과의 FTA가 최근 발효
 - * 싱가포르: 2008년 12월 서명 → 2013년 9월 발효, EFTA: 2009년 6월 서명 → 2014년 7월 발효
- 2014년 3월 GCC 외교장관회의에서 GCC FTA 협상 재개를 승인한 바 있으며 구체적 시기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 및 중국 등을 중심으로 협상 재개 입장 재확인

* 한국은 2014년 9월 전략협력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에서 FTA 협상 재개를 희망하였으며 중국과는 “2014-2017 Action Plan” 서명을 통해 FTA 체결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협상 재개 가능성이 보임

<GCC의 FTA 추진 현황1>

협상단위	발효(4건,17개국)	타결(1건,1개국)	협상 잠정중단
GCC차원	GAFTA*(1998), 레바논(2006), 싱가포르(2013), EFTA(2014)	뉴질랜드(2009)	한국, EU, 중국, 터키, 파키스탄, 인도, 일본, MERCOSUR, 호주
개별국 차원	바레인·미국(2006) 오만·미국(2009)	—	—

주1: GAFTA(범아랍자유무역지대,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 22개국 가운데 저개발국 4개국을 제외한 18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주2: ()는 FTA 발효 또는 타결 연도

자료: 박지은·이혜연 외. (2015년).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p.118).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포커스, Vol.14 No.3.

1) GCC는 2001년 대외경제 관련 협상시 공동대응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FTA 체결시 GCC 차원에서 협상 진행을 원칙으로 함. 2004년 9월 바레인이 미국과 FTA를 체결, 2005년 10월 오만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GCC의 공동대응기본원칙이 무너졌으나 2005년 12월 GCC 정상회담에서 오만·미국 FTA까지만 개별협상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후 FTA부터는 공동으로 협상한다는 원칙에 제합의

2. 한·GCC FTA 추진 현황

- ☐ 한·GCC FTA는 2008년 7월 협상을 개시해 2009년 7월까지 3차례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GCC의 대외 FTA 재검토 방침에 따라 협상 중단
 - 최근 GCC가 그동안 미뤄온 FTA를 발효하는 등 FTA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GCC 외교장관 회담('14.9)에서 한·GCC 전략협력양해각서를 체결시 협상 재개 추진 가능성 언급

<한·GCC FTA 추진현황>

일자	추진 경과
2007.3	대통령 중동 방문시 FTA 추진 제안
2007.11	한·GCC FTA 예비협의 개최
2008.1.22	한·GCC FTA 공청회 개최
2008.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출범 공식 의결
2008.7.9~10	제1차 협상 개최(협상 개시)
2009.3.9~10	제2차 협상 개최
2009.7.8~10	제3차 협상 개최
2009.11.17~19	원산지·서비스 회기간 회의 개최 이후 협상 중단
2014.3	GCC외교장관회의에서 협상 재개 결정
2014.9.26	전략협력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측 협상 재개 움직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fta.go.kr)

II. 한·GCC FTA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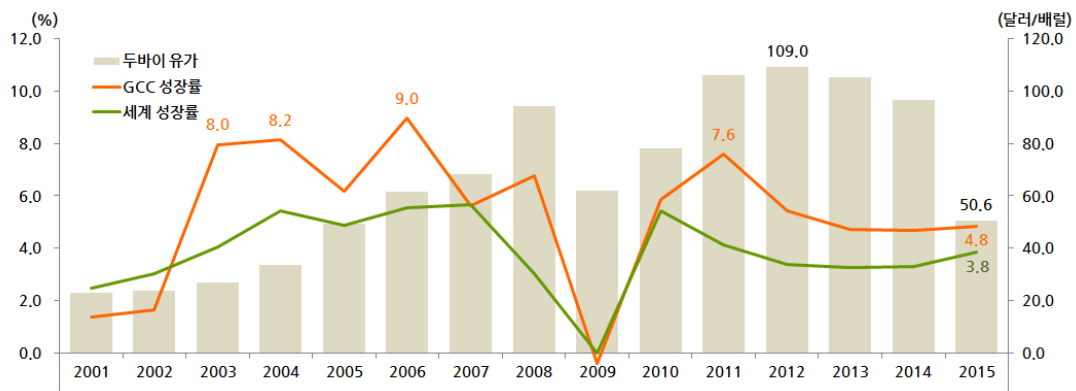
1. GCC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 GCC 경제성장률은 4%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명목GDP)는 1조 6,389억 달러로 세계 12위 수준

○ GCC 경제성장률은 200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4% 후반대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

- 이라크 전쟁 종결로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최근 들어 4%대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음

<GCC 경제성장률과 국제유가 추이>



주: 2015년은 국제유가는 2월 23일까지의 입력된 가격의 평균

자료: IMF WEO(2014년 10월), Petronet

○ GCC 경제규모는 1조 6,389억 달러로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시장이며 1인당 GDP(PPP기준)는 6개 회원국 모두 40,000달러를 상회하며 높은 구매력을 가짐

-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일본,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짐

* 일본(48,985억 달러, 3위), 브라질(22,460억 달러, 7위), 러시아(20,968억 달러, 9위)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비중은 GCC의 45.7%로 6개 회원국 중에 가장 크며, 카타르는 1인당 GDP(PPP기준)가 145,894달러로 세계 1위 수준

<GCC 회원국 및 한국의 경제 현황>

국가	명목 GDP			1인당 GDP(PPP기준)		수입액 (십억 달러)	국토면적 (천 km ²)	인구 (백만 명)
	금액 (십억 달러)	비중(%)	순위	금액 (달러)	순위			
GCC	1,638.9	100.0	12	-	-	523.5	2,573.0	49.7
사우디아라비아	748.5	45.7	20	51,779	11	162.2	2,149.7	30.0
UAE	402.3	24.5	30	63,181	7	257.4	83.6	9.0
카타르	202.5	12.4	50	145,894	1	27.0	11.6	2.0
쿠웨이트	175.8	10.7	58	70,785	5	29.0	17.8	3.9
오만	77.1	4.7	65	43,304	19	34.3	309.5	3.6
바레인	32.8	2.0	94	49,633	12	13.7	0.8	1.2
한국	1,304.5	100.0	14	33,791	30	515.6	99.7	50.2

자료: IMF WEO(2014년 10월), 2013년 기준

- 한편 유가 하락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향후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GCC 전체 GDP 중 석유·가스 등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8.7%에 달해 국제유가 하락은 GCC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음

* GDP 대비 석유·가스산업 비중: GCC(48.7%), 사우디(48.4%), UAE(39.5%), 카타르(59.3%), 쿠웨이트(60.9%), 오만(52.9%), 바레인(27.0%)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들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유 공급량을 감축하지 않고 있어²⁾ 저유가정책이 지속될 경우 GCC 국가들의 성장 둔화가 우려

* 국제유가는 전년동기비 49.7% 하락하여 2015년 50.6달러/배럴 기록(~2월 23일 평균, 두바이유가)

2) 유가 안정을 위해서 원유 공급량을 감축해야 하지만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40달러/배럴까지 하락하지 않는 한 감산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바 있으며 이는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원유 소비·의존도 확대를 목적으로 함(“Winners and losers of oil price plunge”, Financial Times 2015.2.23.)

2. 한·GCC 교역규모와 주요 품목

□ 한국과 GCC의 연간 교역규모는 1,205.4억(2014년)으로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비중 11.0%를 차지하는 제3대 교역국(수출 7위, 수입 1위)

- 원유 등 천연자원 수입을 의존하고 있어 GCC와의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중

<한국의 對GCC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

연도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금액	62.2	150.3	125.0	172.7	195.4	177.9	198.3
	(증가율)	(20.3)	(37.4)	(6.9)	(38.1)	(13.1)	(-9.0)	(11.4)
수입	금액	417.1	855.2	664.4	954.6	1,047.3	1,057.7	1,007.2
	(증가율)	(42.2)	(55.1)	(33.2)	(43.7)	(9.7)	(1.0)	(-4.8)
교역	금액	479.4	1,005.6	789.4	1,127.3	1,242.7	1,235.6	1,205.4
	(증가율)	(38.9)	(52.1)	(28.2)	(42.8)	(10.2)	(-0.6)	(-2.4)
수지	금액	-354.9	-704.9	-539.4	-781.9	-851.9	-879.8	-808.9
	<증감액>	<-113.3>	<-262.8>	<-157.7>	<-242.5>	<-70.0>	<-27.9>	<70.9>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품목별로는 승용차, 선박, 건설 중장비 등 주요 제조품목을 수출하는 한편 원유, 천연가스, 나프타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

<한국의 對GCC 주요 교역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품목명	2013	2014	비중	품목명	2013	2014	비중
승용차	4,411	5,140	25.9	원유	70,714	68,275	67.8
선박	356	1,136	5.7	천연가스	16,044	15,473	15.4
전선	580	749	3.8	나프타	11,748	10,052	10.0
건설중장비	570	614	3.1	LPG	4,046	3,227	3.2
칼라TV	329	546	2.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813	1,147	1.1
석유화학합성원료	349	481	2.4	석유화학합성원료	400	355	0.4
자동차부품	466	460	2.3	암모니아수	296	325	0.3
무선전화기	574	449	2.3	중유	210	317	0.3
타이어	431	410	2.1	기타석유화학제품	485	306	0.3
축전지	274	401	2.0	동괴 및 스크랩	285	270	0.3
폴리에스터직물	321	341	1.7	철구조물	25	244	0.2
공기조절기	276	339	1.7	석유화학중간원료	135	134	0.1
차단기	296	325	1.6	합성수지	64	79	0.1
펌프	254	320	1.6	연괴 및 스크랩	53	66	0.1
밸브	338	305	1.5	폐건전지	43	61	0.1
소계		12,016	60.6	소계		100,331	99.6
총계		19,826	100.0	총계		100,716	100.0

주: MTI 4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특히, 원유, 가스, 석유제품 등 자원 관련 수입이 커 GCC 6개국은 우리나라 총 수입의 19.2%를 차지하며 최대 수입 상대임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UAE 등 GCC 3개 회원국이 우리나라 10대 수입국에 포함

* 국별 한국의 수입규모(순위, 對세계비중): 사우디아라비아(4위, 7.0%), 카타르(5위, 4.9%), 쿠웨이트(8위, 3.2%), UAE(9위, 3.1%), 오만(26위, 0.9%), 바레인(55위, 0.1%)

○ 원유, LNG, LPG, 석유제품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 對GCC 수입의 96.7%를 차지해 GCC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1.9%, 천연가스 수입의 49.3%를 GCC에서 조달

<한국의 對GCC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10	2014	비중	연평균증가율	주요 수입국
원유	45,913	68,275	71.9	10.4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순
석유제품	7,335	10,380	34.4	9.1	러시아, 사우디, UAE, 카타르 순
나프타	7,332	10,052	46.0	8.2	러시아, 사우디, 카타르, UAE 순
LNG	7,933	15,473	49.3	18.2	카타르, 인도네시아, 오만 순
LPG	3,128	3,227	66.5	0.8	UAE,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순
프로판	1,406	1,467	65.0	1.1	카타르, 쿠웨이트, UAE, 사우디 순
부탄	1,722	1,759	67.9	0.5	UAE, 쿠웨이트, 사우디 순
석유화학제품	879	874	5.3	-0.1	일본, 미국, 중국 순, 사우디(7위)
에틸렌글리콜	315	355	81.5	3.0	사우디, 싱가포르, 일본 순
기타석유화학제품	197	306	7.0	11.6	일본, 중국, 독일 순, 사우디(8위)
스틸렌	121	113	8.5	-1.7	일본, 미국, 사우디 순

주: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對세계 수입에서 對GCC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연평균증가율은 2011~2014년 4년간 연평균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GCC는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제7위 수출상대로 자동차, 기계 등 일부 우리 수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

○ GCC의 제조업 비중은 10% 미만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계, 철강제품, 건설자재 등의 수출비중이 높음

- 승용차의 경우 對세계 수출에서 GCC가 차지하는 비중이 11.5%에 달하고 담배(39.1%), 에어컨(30.0%) 등을 비롯하여 특장차, 타이어 튜브, 철근, 일부 전기제품, 벽지 등도 전체 수출에서 GCC가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남

<한국 주요 수출품에서 GCC의 중요성>

(단위: 백만 달러, %)

품목군	품목명	對세계	GCC	비중	품목군	품목명	對세계	GCC	비중
산업기계	공기조절기	2,068	338.9	16.4	전자제품	무선수신기	317.0	70.6	22.3
	펌프	3,361	320.0	9.5		TV/카메라및수상기	870.0	64	7.4
	가열난방기	1,351	255.9	18.9		컴퓨터	764.0	39	5.1
	운반하역기계	1,323	139.4	10.5		프린터	466.0	34	7.4
	건설중장비	6,461	614.0	9.5		분석시험기	414.0	24	5.9
	화학기계	1,283	194.4	15.2		칼라TV	5,803.0	546	9.4
	기타산업기계	1,512.0	112.0	7.4		에어컨	211.3	63.5	30.0
	광산기계	270.2	31.8	11.8		축전지	4,728.0	401	8.5
자동차 및 부품	승용차	44,821.1	5,140.3	11.5		스위치	457.0	37	8.1
	화물자동차	3,090.0	240.0	7.8		변성기	295.3	31.9	10.8
	특장차	255.0	81.1	31.8		차단기	821.1	325.5	39.6
	타이어	4,062.5	409.8	10.1		변압기	1,451.8	294.3	20.3
	타이어튜브	222.5	50.0	22.5		배전및제어기	2,047.7	237.7	11.6
철강제품	철강관	4,109.0	297.0	7.2		원자로및전기로	287.7	105.8	36.8
	철구조물	2,852.0	220.0	7.7		발전기	534.0	48	9.0
	주단강	1,207.6	194.4	16.1		전선	3,844.7	749.3	19.5
	중후판	2,151.0	187.0	8.7	석화제품	석유화학합성원료	3,473.7	481.2	13.9
	철강및비합금강형강	1,099.2	149.0	13.6	기호식품	담배(연초류)	702.4	274.6	39.1
	철강재용기	907.0	126.9	14.0	장신구	장신구	253.0	21	8.1
	주철	1,558	88.0	5.6		귀금속장식품	197.0	23.5	11.9
	합금철	513.3	54.8	10.7	종이제품	인쇄용지	1,323.0	75	5.6
	전기강판	608.0	40.0	6.6		벽지	135.4	30.5	22.6
	철근	163.4	35.6	21.8	섬유	폴리에스터직물	1,811.8	341.0	18.8
기계요소 및 금형	밸브	1,456.8	305.5	21.0		자수포	117.2	36.7	31.3
	기타금형	284.0	20.0	7.1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302.0	21	7.0
비철금속 제품	아연괴및스크랩	1,003.0	78.0	7.7		기타섬유제품	1,573.0	120	7.6
	기타비철금속제품	346.1	51.1	14.8	무기류	무기류	412.0	22	5.4

주: 비중은 對세계 수출 중에 對GCC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GCC 경제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시장으로 주요국 FTA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GCC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GCC 시장 선점의 유리한 환경 조성 필요
- GCC는 우리나라의 FTA 미체결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상중 하나임
 - * 우리나라의 수출상대 순위('14년 수출비중): 중국(25.4%), 미국(12.3%), 일본(5.6%), 홍콩(4.8%), 베트남(3.9%), 싱가포르(4.1%), GCC(3.5%)順
- GCC와의 FTA 협상 재개를 통해 수출확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플랜트 사업 확대, 통신 등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비관세장벽 해소 필요
- 중국, EU, 일본 등도 모두 GCC와 FTA 협상을 진행하다 잠정 중단된 바 있어 경쟁국에 앞선 FTA 추진으로 FTA 선점 효과 확보 필요

3. 주요 산업별 GCC 시장의 중요성

① 건설 및 플랜트 산업

□ 우리나라의 對GCC 건설 수주 규모는 2,692.5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8%(누적기준)에 달하는 최대 건설-플랜트 시장

-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해외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에 다소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전 세계 건설 수주의 19.3%를 기록하며 1위를 지키고 있으며 UAE, 쿠웨이트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누적기준)

<우리나라의 GCC 건설 수주 동향>

(단위: 건,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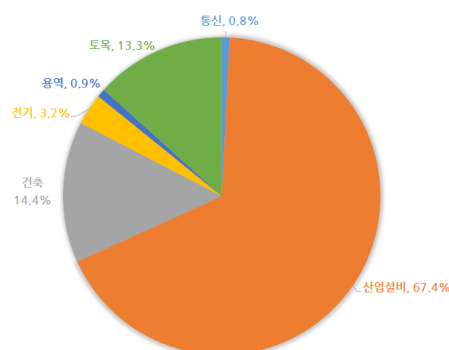
국가	2014년			5년 누계(2010~2014년)			전체 누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순위
GCC	51	165.3	25.0	333	1,256.5	38.4	2,447	2,692.5	39.8	-
사우디	17	29.5	4.5	153	562.1	17.2	1,739	1,302.5	19.3	1
UAE	14	37.4	5.7	87	362.5	11.1	269	684.2	10.1	2
쿠웨이트	7	77.4	11.7	39	190.1	5.8	236	400.0	5.9	3
카타르	10	16.7	2.5	31	89.3	2.7	106	185.4	2.7	8
오만	3	4.3	0.7	19	43.8	1.3	44	84.6	1.3	23
바레인	-	-	-	4	8.6	0.3	53	35.9	0.5	33
전체	708	660.1	100.0	3,221	3,268.3	100.0	10,410	6,761.0	100.0	-

주: 비중과 순위는 금액 기준, 전체 누계는 1966.1.5.~2014.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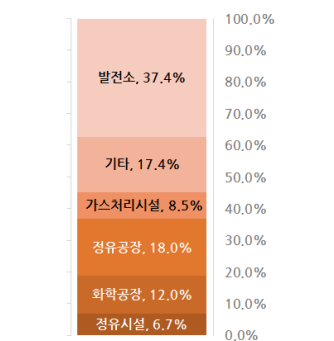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ICA.or.kr)

- 분야별로는 산업설비 수주가 GCC 건설 수주의 6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 특히 발전소 및 오일/가스 플랜트 건설 등에 집중

<우리나라의 공사종류별 GCC 건설 수주 현황>



(공사종류별 건설 수주 비중)



(산업설비 건설의 세부 현황)

자료: 해외건설협회(ICA.or.kr)

□ 한·GCC FTA는 대규모 조달시장과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필요

○ GCC 6개 회원국은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므로 FTA를 통해 GCC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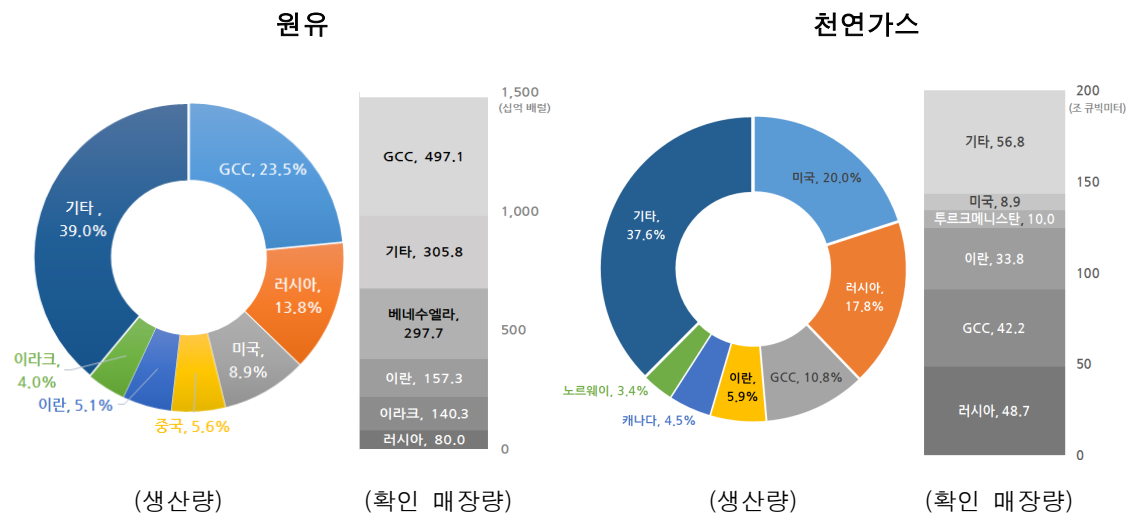
-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은 WTO GPA 옵서버 국가, 오만은 GPA 가입 협상중,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입조건 이행중

○ GCC 건설 프로젝트의 확대는 건설 중장비, 화학기계 등 산업 기자재 수출 확대로 연계 가능하며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중동 시장 진출도 가능

②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 확보

□ GCC는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양국간 FTA는 주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에너지 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GCC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및 확인 매장량>



- GCC는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 국가로 전 세계 하루 생산량의 23.5%인 17.1백만 배럴/일을 공급하며 천연가스도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생산국
- 현재 원유 확인 매장량의 33.6%인 4,971억 배럴이 GCC에 집중되어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42.2조 큐빅미터로 확인되고 있어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처임
- * GCC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9.8백만 배럴/일로 GCC 전체 생산량의 57.1%를 생산하고 있으며 쿠웨이트(17.4%), UAE (15.5%) 순

III. 한-GCC FTA 기대효과 및 검토사항

1. 관세 철폐

- GCC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역내 관세는 무관세로 하며 대외적으로는 역외 공동 관세(Common External Customs Tariff)를 부과³⁾
 - '93년 6개국간 FTA로 역내 관세장벽을 철폐한 뒤 '03년부터 관세동맹을 출범하여 역외 공동관세를 5%로 통일하고 이후 장기간의 이행 노력과 논의를 거쳐 '15년 1월 1일 완전한 형태의 관세 동맹 출범⁴⁾
 - 관세동맹 출범으로 ①GCC 6개국은 단일한 관세, 통관 규정, 절차를 갖게 되고 ②수입품은 GCC 국가 중 어느 한 곳의 통관을 거치면 역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③관세 수입(revenues)은 비율에 따라 분배되고 ④GCC 역내 생산품은 관세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됨⁵⁾
- GCC 국가들은 관습, 문화적인 이유로 일부 제품 등은 수입 금지 또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사막 지역으로 작물이 부족한 만큼 일부 식품 및 농산물은 무관세를 적용
 - GCC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로 돼지고기, 담배, 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고관세를 부과
 - 사막지역으로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수급이 어려운 특성이 반영되어 상당수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제조품을 포함한 무관세 품목수 비중은 전체의 11.1%임

3) GCC사무국. (2012년) Process of The Customs Union of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2002-2012(p10), GCC사무국(Secretariat General). pp.1-20

4) 정재화. (2008년) 한-GCC FTA 추진 필요성(p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GCC FTA 공청회 발표자료. pp.1-29, 권용석 외. (2006년) 한-GCC FTA 체결 영향과 시사점(p10~14). KOTRA 기획조사 06-672. pp.1-46, '\$121b trade volume: Massive trade growth recorded among GCC Customs union countries'. 2015년 2월 18일자. Customs Today 등 자료 종합

5) 'GCC customs union fully operational'. 2015년 1월 3일자 The Peninsula 및 GCC사무국. (2012년) Process of The Customs Union of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2002-2012(p11~18), GCC사무국(Secretariat General). pp.1-20 등 자료 종합

- 나머지 87.4%의 제조품과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역외 공동 관세로 일괄적으로 5%를 부과

<GCC의 역외공동관세>

관세율(%)	품목수(개)	비중(%)	비고
수입금지 및 고관세	108	1.5	돼지고기, 담배, 주류, 중고타이어 등
0%	809	11.1	농수산물, 의료용품, 일부 제조품
5%	6,383	87.4	제조품, 농수산물
전체	7,300	100.0	-

주: 품목수는 HS 8단위 기준

자료: WTO 국가별 MFN 세율 및 UAE 관세청의 The Unified Customs Tariffs for GCC States 2012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

□ GCC가 최근 발효한 GCC·싱가포르 FTA('13.9월), GCC·EFTA FTA('14.7월)의 경우 FTA를 통한 GCC의 개방 수준과 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GCC·싱가포르 FTA의 GCC 개방 수준(관세철폐 비중)은 96.6%이며 GCC·EFTA FTA에서 GCC의 제조업 분야 개방 수준은 99.7%에 달함

- 싱가포르, EFTA와의 FTA에서 GCC는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 (GCC·싱가포르: 93.7%, GCC·EFTA 제조업 품목: 99.0%) 하고 나머지 일부 품목의 경우도 발효 5년내 철폐 하는 등 개방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GCC는 발효 5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에 대해 연도별로 관세가 인하되는 단계적 철폐 방식이 아니라 발효 5년후 일거에 관세가 철폐되는 방식을 채택

<기체결 FTA GCC측 개방안>

	GCC·싱가포르 FTA GCC측 개방안(전체)	GCC·EFTA FTA GCC측 개방안(제조업*)
즉시철폐	93.7%	99.0%
5년후 철폐**	2.8% (수산물, 철강, 자동차, 염료, 화장지, 고무벨트, 타일 제품중 일부)	0.7% (정밀화학 원료, 식물성 물질, 접착제, 가죽 제품 중 일부)
양허제외 및 수입금지	3.4% (비료, 철강·알루미늄 제품, 시멘트, 석면 등 오염제품, 중고타이어, 에어컨, 가죽 제품 중 일부)	0.3% (시멘트, 석면 등 오염제품, 중고타이어, 가죽 제품 중 일부)

주1: * GCC·EFTA FTA에서 제조업(HS 25~97류)의 상품 부속서를 작성하고 농수산물 등은 별도 규정,

주2: ** GCC·싱가포르 FTA 및 GCC·EFTA FTA에서 연도별로 단계적 철폐가 아닌 5년후 일괄 철폐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자료: GCC·싱가포르 FTA 및 GCC·EFTA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자체 분석

□ GCC는 최근 발효한 FTA에서 우리나라의 對GCC 주요 수출품 대부분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

○ 선박, 휴대폰, 벤젠 등을 제외한 對GCC 수출품의 대부분이 5% 관세를 부과 받는 가운데 GCC는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최근 FTA에서 모두 관세를 조기 철폐

－ GCC·싱가포르 FTA에서 중대형 승용차 일부 세번에 대해서만 5년후 철폐

<對GCC 주요 수출품의 FTA별 GCC측 개방안>

(단위: 억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4년	對GCC 수출 증가율	수출 비중	GCC 역외 공동 관세	FTA별 GCC측 개방안	
			금액				GCC·싱가포르	GCC·EFTA
1	870323	중형 및 준중형 휘발유 승용차	36.5	17.0	18.39	5%	즉시철폐, 일부 5년후	즉시철폐
2	890120	화물선	8.0	291.4	4.05	0%	즉시철폐	즉시철폐
3	870322	소형 휘발유 승용차	7.6	18.6	3.81	5%	즉시철폐	즉시철폐
4	870324	대형 휘발유 승용차	6.7	9.4	3.38	5%	즉시철폐, 일부 5년후	즉시철폐
5	854460	전력용 전선	5.7	47.9	2.85	5%	즉시철폐	즉시철폐
6	852872	컬러TV	5.4	69.2	2.71	평균 2.5%** (0 또는 5%)	즉시철폐	즉시철폐
7	291736	석유화학 중간원료 (테레프탈산)	4.8	38.1	2.43	5%	즉시철폐	즉시철폐
8	851712	휴대 폰	4.5	-21.8	2.26	0%	즉시철폐	즉시철폐
9	850710	배터리(엔진시동용)	3.9	46.8	1.98	5%	즉시철폐	즉시철폐
10	842952	굴착기	3.7	9.6	1.88	5%	즉시철폐	즉시철폐
11	870899	기타 자동차 부품	3.4	-8.6	1.73	5%	즉시철폐	즉시철폐
12	240220	담배	2.8	65.9	1.39	증가세 100% +1,000개비당 100 UAE 디르함 (한화 3만원)***	양허제외	-
13	848180	밸브	2.5	-17.2	1.28	5%	즉시철폐	즉시철폐
14	850423	유압식 변압기	2.5	-15.5	1.26	5%	즉시철폐	즉시철폐
15	401110	승용차용 타이어	2.5	7.5	1.25	5%	즉시철폐	즉시철폐
16	853529	차단기	2.3	-2.4	1.18	5%	즉시철폐	즉시철폐
17	841950	열교환기	2.2	22.2	1.09	5%	즉시철폐	즉시철폐
18	540761	폴리에스터 직물	2.2	-2.4	1.09	5%	즉시철폐	즉시철폐
19	730890	기타 철구조물	2.1	-6.6	1.08	5%	즉시철폐	즉시철폐
20	290220	벤젠	2.1	54.8	1.03	0%	즉시철폐	즉시철폐
-	-	소계	111.3	21.3	56.11	-	-	-
-	-	총계	198.3	11.4	100.0	-	-	-

주1: * 이해를 돕기 위한 품목설명으로 실제 HS 코드상의 품목명과 다를 수 있음

주2: ** 컬러 TV의 관세율은 세부 품목 별로 0% 또는 5%로 평균 수치인 2.5%를 표시

주3: *** 담배에 대한 관세는 '증가세 100%+1,000개비당 국가별 종량세'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에서 GCC로 수출되는 담배의 90.1%가 UAE로 수출되고 있어 UAE의 종량세를 표기(국가별 종량세는 바레인 10BD, 사우디아라비아 100SR, 오만 100R, 카타르 100 QR, 쿠웨이트 8KD)

자료: GCC·싱가포르 FTA 및 GCC·EFTA FTA 협정문, WTO 국가별 MFN 세율 및 UAE 관세청의 The Unified Customs Tariff for GCC States 2012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

□ 對GCC 수출의 관세액이 연간 11.1억 달러(추정)에 달해 한-GCC FTA 체결 시 한미 FTA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기대

- GCC가 최근 체결한 FTA와 같이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할 경우 한-GCC FTA가 매년 한미 FTA 수준의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됨

<對GCC 관세장벽 및 주요 FTA의 관세절감 효과>

(단위: 억 달러)

對GCC 수출 연간 관세장벽(추정치)*	FTA를 통한 연간 관세절감액**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11.1	9.3	13.8	54.4

주: * 담배 등 '증가세+종량세' 품목의 경우 수출 물량 자료 결측으로 증가세 부분을 바탕으로 관세장벽을 추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관세 장벽은 더욱 커질 수 있음

자료1: * WTO 국가별 MFN 세율 및 UAE 관세청의 The Unified Customs Tariffe for GCC States 2012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

자료2: **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2. 서비스 시장 개방

- WTO 서비스 협정상의 시장 개방 수준이 높지 않은 만큼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 GCC의 서비스 시장 장벽을 대폭 낮추어 진출 여건 개선 필요
- 일부 국가에서 유통, 통신, 등 미양허 분야가 존재하고 WTO(GATS), FTA 등을 통해 개방한 분야도 출자비율, 합작, 체류 등의 조건, 개방 예외 등 개방 수준이 높지 않아 시장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

<GCC 국가의 WTO 서비스 협정상의 양허목록 현황>

	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비즈니스 서비스	○	○	○	○	○	
통신 서비스	○	○		○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유통 서비스	○		○		○	
교육 서비스	○				○	
환경 서비스	○	○	○	○	○	
금융 서비스		○	○	○	○	○
보건 관련 및 사회서비스	○		○		○	
관광 및 관광관련 서비스	○	○	○	○	○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			
교통 서비스	○				○	

주: 이해를 돕기 위해 WTO 서비스 협정의 국가별 양허 목록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으로 표시된 분야가 전부 개방된 것은 아니며 세부 내용상에는 출자비율, 합작, 체류, 개방 예외 등의 다양한 조건이 존재
 자료: WTO, 세계은행의 I-TIP Services GATS 자료와 권용석 외. (2006년) 한·GCC FTA 체결 영향과 시사점(p36). KOTRA 기획조사 06-672. pp.1-46를 바탕으로 재구성

- GCC의 서비스 수입 시장 규모는 1,784.1억 달러('13년 기준)로 규모면에서 우리나라를 상회하며 최근 4년간 13.0%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GCC를 포함한 중동지역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11.5%('13년)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

<GCC 국가의 서비스 수입 시장(정부서비스 제외) 동향>

(단위: 억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0-2013년 연평균증가율
GCC	1,224.3	1,525.4	1,641.4	1,784.1	13.0
UAE	413.4	557.0	621.9	699.6	17.5
사우디아라비아	510.0	549.5	498.9	516.8	2.4
카타르	76.7	155.5	221.3	248.4	44.7
쿠웨이트	142.4	174.9	197.7	203.8	12.4
오만	62.9	70.7	86.8	99.4	16.0
바레인	19.1	17.8	14.8	16.1	-1.9
한국	949.6	999.7	1,048.7	1,059.2	7.4

자료: WTO, 세계은행의 I-TIP Services

3. 정부 조달

- GCC 6개국은 모두 WTO 정부조달 협정 미가입국이므로 FTA 체결시 정부조달 분야를 포함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 개선이 필요
- 싱가포르, EFTA와의 FTA에는 모두 정부조달 분야가 포함되어 WTO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GCC 국가들도 FTA를 통해 정부조달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함
-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WTO 정부조달 협정 미가입국과의 FTA에서 정부조달 분야를 포함하여 우리 기업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4. 자원 협력 및 할랄(Halal) 인증 협력

- (자원협력) FTA를 계기로 자원부국인 GCC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자원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 도모
- 자원 개발·생산 분야의 협력 활동, 정보 교환 등과 함께 비상사태 발생시 우선적인 에너지 공급 방안 등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 필요
- 우리나라는 자원부국인 페루, 콜롬비아, 호주 등과의 FTA에서 에너지·자원 협력을 협정문에 포함한 바 있으며 한·호주 FTA에서는 에너지·광물 자원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 체제를 통해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안보 조항을 도입
- (할랄 인증 협력) 할랄 시장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감안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FTA 차원에서 할랄 인증 관련 협력 조항 도입 필요
- GCC 지역은 농식품의 수입의존이 높은 만큼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협력 조항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할랄 인증 취득 지원
- GCC·싱가포르 FTA는 싱가포르 할랄 인증을 GCC 국가에서 인정 받기 위한 할랄 인증 관련 협력 조항을 포함

5. 비관세 장벽

□ GCC 6개국에는 수입, 정부조달, 투자, 고용 관련의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므로 FTA 추진시 비관세장벽과 애로사항을 협의·시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 마련 필요

-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입과 관련해서 일부 중고품의 수입금지, 영사인증 제도 및 수수료, 입찰·설립·허가·법률행위 등과 관련해 현지 파트너·스폰서·에이전트를 필요로 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 존재
- 또한 정부조달·공공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현지 제품에 대한 가격 우대, 현지 기업 하청 의무, 일정 금액의 Offset(현지재투자) 제도 등이 있으며 고용과 관련한 자국민 고용 의무 부과 등의 장벽이 존재

<GCC 국가의 주요 비관세 장벽>

국가	주요 비관세 장벽
사우디아라비아	·중고차 수입 금지(5년 이상, 대형트럭 10년 이상) ·정부조달시 주요 계약에 대해 Offset(현지 재투자)제도로 계약금액의 25~35%까지 재투자 의무 ·정부조달시 현지產 제품의 외국 제품 대비 10% 가격 특혜 ·재무부 승인 플랜트 설비 공사의 경우 30% 현지기업 하청 의무 ·자국민 의무 고용 제도(Saudization, 최대 75%) ·거주 외국인 스폰서 통한 법률 행위, 전통·관습에 따른 포장 필요
UAE	·정부조달시 현지產 제품의 외국 제품 대비 10% 가격 특혜 ·정부조달시 현지 파트너 필요 ·회사설립시 현지 스폰서 또는 에이전트 필요 ·자국민 고용 우선 제도(Emiratization) 추진
카타르	·수출시 영사인증제도 및 수수료 ·정부조달시 현지產(또는 GCC產) 제품의 외국 제품 대비 10%(또는 5%) 가격 특혜
쿠웨이트	·의료장비 등 에이전트 통해 수입승인 절차 선행 필요 ·건설 현장 중고 중장비 수입 금지(10년 이상) ·정부조달시 현지 에이전트 필요 및 입찰시 현지產 제품의 외국 제품 대비 15% 가격 특혜 ·정부조달 소규모 공사시 쿠웨이트화(Kuwaitisation) 정책으로 현지 업체만 대상 ·공공공사 Offset(현지 재투자)제도로 계약금액의 35%까지 재투자 의무 ·공공 프로젝트시 국적자 고용 의무 ·건설업 허가시 쿠웨이트 파트너 필요 ·건설자재 현지產(또는 GCC產) 제품의 외국 제품 대비 20%(또는 10%) 가격 특혜
바레인	·자국민 의무 고용 제도(Bahrainization, 500명 이상 대기업 25~30%)
오만	·수출시 영사인증제도 및 수수료 ·정부조달시 현지 파트너 참여 필요 및 현지產(또는 GCC產) 제품의 외국제품 대비 10%(또는 5%) 가격 특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년),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국가별 정보 바탕으로 정리

6. 기타 검토사항

□ (민감분야) GCC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사막지역에 존재해 농산물 순수입국이지만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강점이 있고 일부 수산물에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FTA 추진시 이들 분야가 민감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임

○ (석유화학) 산유국인 GCC 국가들은 원유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에탄가스를 주원료로 석유화학 산업을 영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제물인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원가 경쟁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FTA 추진시 해당 산업에 대한 배려 필요⁶⁾

－ 또한 중동 지역 국가들은 대규모 신증설로 그동안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를 크게 앞서고 있음⁷⁾

* 에틸렌 생산능력('12년): 사우디아라비아 15.8백만 톤(세계 3위), 한국 8.4백만 톤(세계 4위)⁸⁾

－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산업 강국인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이러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일부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10년 철폐 등 장기 관세 철폐를 확보함

□ (원유 등의 관세철폐 이슈) '08년 한-GCC FTA 추진 당시 원유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우리나라 재정 수입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후 원유에 대해 0%의 용도세율*이 운용된 적이 있어 원유, 가스 등에 대한 관세 철폐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용도세율: (관세법 제83조) 하나의 물품이라도 그 물품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용도에 따라 달리하는 세율을 뜻함

○ 우리나라는 원유, LNG, LPG 수입에 대해 3%의 MFN 세율을, 나프타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유의 경우 목적에 따라 용도세율, LNG 및 LPG는 계절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

－ 용도 및 탄력 세율은 과거 0%로 운용되었으나 '15년부터 1~2%로 인상

6) 김동우. (2011년). 중동 석유화학 산업 현황 및 국내기업 영향(p4). KB금융지주연구원 pp.1-15

7) 윤재성. (2013년). 글로벌 석유화학 패권전쟁 발표자료(p8). 대신증권 pp.1-30

8) 한국석유화학협회. (2013년). 2013 석유화학 MINIBOOK(p6). 한국석유화학협회 pp.1-27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

	원유	나프타	LNG	LPG
기본관세	3%	0%	3%	3%
WTO관세	-	5%	5%	5%
탄력관세	0%→1~2%('15년부터)	-	0%→2%('15년부터)	0%→2%('15년부터)
조건	나프타 제조용: 1%(1억 7천만 배럴 限) - 2015.1.1.~12.31일에 적용 프로판/부탄 제조용: 2%(1,225만 배럴 限) - 2015.1.1~6.30일에 적용		수입전량 - 2015.1.1.~3.31일 2015.10.1~12.31일	수입전량 - 2015.1.1~6.30일

주: 관세율은 2014년 한국의 對GCC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으로 한정

자료: 2015년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 또한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

* 원유 관세는 일본, EU, 중국, 대만의 경우 무세이며 미국은 5.25(API 25미만) 또는 10.5\$/bbl(API 25이상), 천연가스는 일본, EU, 중국, 대만, 미국 모두 무관세 적용중

- '15년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 및 LNG·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0%에서 각각 1, 2%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업계는 2,000억 원의 세금 추가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⁹⁾

9) 연합뉴스 “나프타용 원유, LPG에 할당관세 부과한다” (2014.12.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3/0200000000AKR20141223052600002.HTML?input=1195m>

IV. 결론 및 시사점

- GCC는 제조업 분야의 수출국이자 원유·가스의 공급처, 건설·플랜트 수주국으로 우리의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임
 - GCC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14년 7위) 수준이지만 GCC 內에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수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경우 우리 총수출에서 GCC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승용차(11.5%), 담배(39.1%), 에어컨(30.0%) 등을 비롯, 공기조절기(16.4%), 화학기계(15.2%), 밸브(21.0%), 차단기(39.6%), 철근(21.8%) 등 우리나라의 건설·플랜트 관련 수출 품목도 GCC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GCC는 우리나라 총수입의 19.2%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 상대로 원유, LNG, LPG, 석유제품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은 對GCC 수입의 96.7%를 차지. 또한 원유 수입의 71.9%, 천연가스 수입의 49.3%를 GCC에 의존
 - GCC는 세계 원유 생산량 1위, 매장량 1위, 천연가스 생산량 3위, 매장량 2위의 자원 부국
 - GCC는 우리나라 최대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GCC 국가 대상 건설 수주 규모는 누적기준 2,692.5억 달러로 전체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의 39.8% 차지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이 GCC와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던 중 GCC가 대외 FTA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모두 잠정 중단된 바 있으나 최근 장기간 발효가 지연되었던 싱가포르, EFTA와의 FTA를 발효하며 FTA 추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GCC는 글로벌 금융위기, 역내 제조업 육성 필요성, 관습과 제도 보호를 이유로 EU, 중국, 일본, MERCOSUR 등과 FTA 협상을 모두 중단하였고 한-GCC FTA도 '09년 3차 협상 및 실무 협의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

- 하지만 최근 장기간 발효가 지연되었던 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를 발효하는 등 FTA 추진 재개의 움직임이 관찰됨

* 싱가포르: 2008년 12월 서명 → 2013년 9월 발효, EFTA: 2009년 6월 서명 → 2014년 7월 발효

□ 이에 따라 경쟁국에 앞서 한·GCC FTA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GCC와 FTA 체결시 큰 폭의 관세철폐 효과뿐 아니라 서비스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완화, 자원 협력 강화 등이 기대됨

- GCC가 최근 체결한 FTA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개방 수준이 높아 한·미 FTA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서비스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완화가 기대됨

- GCC는 최근 발효한 FTA에서 일부 품목만 양허제외하고 대부분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도 발효 5년내 모두 관세를 철폐

- 對GCC 수출의 관세 장벽은 연간 11.1억 달러 수준으로 FTA를 관세가 모두 철폐될 경우 한·미 FTA 수준의 관세철폐 효과(연간 9.3억 달러) 기대

- GCC 6개국은 모두 WTO 정부조달협정 未가입국이나 최근 발효·타결한 FTA에서는 모두 정부조달 챕터를 포함하고 GCC와 FTA 타결시 GCC 정부조달 시장 진출 여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FTA 추진시 자원부국인 GCC의 경제·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에너지(에너지 안보), 할랄인증(농식품 수출 확대) 등의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석유화학, 일부 수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배려 필요

- GCC가 자원부국인 만큼 에너지 안보 차원의 자원 협력이 긴요하지만 GCC의 석유화학 산업 가격경쟁력이 상당한 만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배려 필요

〈참고자료〉

권용석 외, 「한-GCC FTA 체결 영향과 시사점」, KOTRA 기획조사 06-672. 2006년.

김동우, 「중동 석유화학 산업 현황 및 국내기업 영향」, KB금융지주연구소 p.8, 2011년.

박지은, 이혜연 외.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포커스 Vol.14 No.3.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2014년

윤재성, 글로벌 석유화학 패권전쟁 발표자료, 대신증권 p.8, 2013년

정재화, 「한-GCC FTA 추진 필요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GCC FTA
공청회 발표자료. 2008년

한국석유화학협회, 「2013 석유화학 MINIBOOK」, 한국석유화학협회, 2013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년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년

GCC사무국 (<http://www.gcc-sg.org>)

IMF World Economic Outlook (<http://www.imf.org>)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코리아 (<http://www.fta.go.kr>)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http://www.petronet.co.kr>)

해외건설협회 (<http://www.icak.or.kr>)